

부안군, 전기차 지원사업 시행

14일부터 22일까지 신청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4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30대, 최대 1500만원 지원하고 전기이륜차는 11대,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기간은 14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일까지 부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단체, 사업장 주소가 부안군인 법인 및 기업 등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판매점은 전

기자 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전기충전소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사랑 상품권 드디어 만난다

7월 발행 앞두고 최종 디자인 선정 중

무주군이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디자인을 마무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당초 추석 명절 전에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름 휴가철 등 구매 수요 요인을 감안해 상품권 발행 시기를 7월로 앞당겼다. 종이 상품권 형태의 5000원권과 1만원권 2종류로 총 10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청·장년층 사용 확대와 관광객 편의 도모,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바일 권 발행도 검토 중이다.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개인의 할인 구매 액은 월 5만 원(연

500만원), 가맹점의 환전 액은 월 500만원으로 한정하며 법인은 할인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사랑 상품권 가맹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 학원, 병의원, 약국 등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사용자는 등록된 가맹점에서 상품권면금액의 70%를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무주군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 관내 전 금융기관을 참여 시킨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금융기관 간 구매자의 할인 구매 액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상품권관

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김대식 과장은 "도내 타시군의 상품권 할인율은 평균 6%정도인데 우리 군은 10%"라며 "이를 감안했을 때 구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사랑 상품권의 최종 디자인 선정을 마친 무주군은 현재 보안요소 가미를 위해 전문 업체에 제작·의뢰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18일부터 이장회의 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는 동시에 4월부터는 홍보 마케터를 직접 채용해 사업 홍보와 가맹점 모집에 주력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271억원 증액한 3677억원 추경 편성

장수군은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중심으로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 11일 2019년도 1차 추경 예산안을 기정액(본예산)보다 271억원이 증가한 3,677억원으로 편성해 장수군의회의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52억원이 증가한 3,40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원이 증가한 272억원이다.

장수군에서는 이번 추경에 귀농인 임시거주시설(실습농장, 게스트하우스) 20억원, 장수야야 유통전시장 건립 47억원, 명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16억원, 장수 향교 진입 인도데크 조성사업 12억원, 장수 중심지 복합커뮤니티 주차타워 부지매입 14억원, 천천~장수IC간 연결 도로 개설공사 18억원(6개년 총 400억원), 농작물 병해충 확대지원사업 3억원등 편성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제1차 추경예산

안은 군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달 25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장수군수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실현, 농업경쟁력 강화 등 군정 시책을 가시화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또한 농촌, 따뜻한 복지를 구현해 예산 400억대의 '풍요로운 미래의 땅, 합천 장수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창경찰서는 13일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서 내 성폭력업무 관련 가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창경찰, 성폭력 피해 방지 합동 간담회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13일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여성청소년계, 강력범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사이버 담당), 이주여성담당, 청문감사실 피해자보호 담당 등 경찰서 내 성폭력업무 관련 가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부터 범포·문화예술계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에서 미투 캠페인을 통한 성폭력 피해 사례 폭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특히 올해는 체육계 미투가 이슈화되면서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사각지대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는 분위기여서 경찰 단계에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되 수사과정 상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성폭력 대응 방안을 확립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여성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시기·대상

별 물리적 환경개선과 지역사회 협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활성화하여 성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조사 전·후, 보호·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피해자의 심리 및 협박·보복범죄를 파악 대처하기로 했다.

박정환 고창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체계적 성폭력 대응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여성범죄특별수사팀에서 △중요 성폭력 사건은 별도 지원팀을 구성 수사하기로 했으며, 피해자들이 신고 후 심경의 변화로 사건화 되지 않는 시간까지도 살피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가능별 합동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문제점 및 개선방안·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종합검토, 촘촘한 피드백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경관지구 조성 추진 축구장 2800배 크기 면적

'청보리밭 축제'로 대한민국 경관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고창군이 관내 곳곳에 특색 넘치는 경관지구를 조성한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남(12일) 유기상 군수 주재로 14개 읍면장과 추진위원장이 참석한 '경관지구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돼 청정하고 자연생태환경을 보유한 만큼, 1읍면 1개소 경관지구를 조성해 특색 있는 지역 명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체 경관지구 목표는 2000ha(축구장 2800배 크기)에 달한다. 조성이 완료되면 유채와 자운영 등 봄이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군 경관지구 조성사업을 총괄추진위원회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전 지역이 알려진 만큼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생명의 발원지인 것은 물론 친자연적인 경관을 되살려 전 국민 모두가 경관하면 고창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한반도에서 고창은 천원문~암마이봉 정상 0.6km구간과 봉두봉~암마이봉 구간이며, 천원문, 봉두봉 방면 2개 출입구가 개방된다. 자연휴식년제로 10년간 통제됐던 마이산도립공원 내 암마이봉 등산로는 2014년 10월 다시 개방되었으며, 탐방



지난해 3월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 경찰관, 전문관제 요원 12명이 4초 3교대로 연중 24시간 근무 중이다.

진안군 CCTV통합관제센터 '활약'

주민 안전 위해 연중 무휴 24시간 근무

진안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실시간 관제를 통해 주민 안전 지킴이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는 진안군 홍산향방센터 2층에 289㎡ 규모로 관제실, 사무실, 회의실, 통신실 등을 갖추고 공무원 2, 경찰관, 전문관제 요원 12명이 4초 3교대로 연중 24시간 근무 중이다.

관제센터는 현재까지 교통사고, 절도, 실종,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 관련 영상 70건 이상을 제공하여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부랑자, 가출자, 만취자, 배회자 등을 조기 발견해 진안경찰서와 공조로 안전하게 귀가 조치한 경우도 급년 초에 3건이 있었다.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올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3377부대1대대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 전북도경찰청 화상추적 실재훈련 등 각종 훈련에 함께 참여하여 범인 예상도주로 관제 및 진행상황 파악 후 유관기관 전달훈련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켰다.

군은 올해 관내 15개소에 차량판독 및 방법망을 구축하고 보안장비를 보완하여 보다 촘촘하게 주민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365일 안전한 진안군을 만들고자 추진한 진안군 CCTV관제센터가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사명감을 갖고 관제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관제센터는 현재까지 교통사고, 절도, 실종,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 관련 영상 70건 이상을 제공하여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부랑자, 가출자, 만취자, 배회자 등을 조기 발견해 진안경찰서와 공조로 안전하게 귀가 조치한 경우도 급년 초에 3건이 있었다.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올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3377부대1대대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 전북도경찰청 화상추적 실재훈련 등 각종 훈련에 함께 참여하여 범인 예상도주로 관제 및 진행상황 파악 후 유관기관 전달훈련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켰다.

군은 올해 관내 15개소에 차량판독 및 방법망을 구축하고 보안장비를 보완하여 보다 촘촘하게 주민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365일 안전한 진안군을 만들고자 추진한 진안군 CCTV관제센터가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사명감을 갖고 관제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 새싹보리 생산기술 보급 연찬회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필환)는 새싹보리 연중 생산 기술 보급사업 연찬회를 14일 진안 애농농조합법인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찬회는 농촌진흥청 등 9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새싹보리의 생산, 가공, 판매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서우덕 박사의 새싹보리 생산 및 활용방안 교육과 기술지원과 주관 새싹보리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며, 애농 친촌진 대표의 새싹보리 재배, 가공, 판매 우수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새싹보리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 부가가치 사업으로 새싹보리 가공품 수요 증가에 대응한 연중 생산 공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건강한 백세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보리의 어린잎을 이용하여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능을 구명하였고 동시에 전용 품종과 최적 재배방법을 확립했다.

김필환 소장은 "새싹보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국내연구로 확립된 새싹보리 적성 품종 보급과 가공 원료의 연중 안정 생산, 농가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원예특작 분야 10억 투입

무주군은 13일 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2019년도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조사업자 185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FTA 과수고품질생산시설향대화사업, △사과 신규식재 지원 사업, △소초특장품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노후 시설하우스 장기성 필름 지원 사업,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행요령과 관련법령, 사업별 준수사항들이 공유됐다.

특히 보조금 교부 절차와 구비서류, 관련법령 등 행정사무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들을 위해 세부설명을 곁들여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김영수 원예특작 팀장은 "올해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에 총 10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농가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인들은 "사업비 지원을 받려면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절차도 알아야하고 또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사업별로 설명 시간을 달래줘서 집중하기가 좋았다"라며 "올해도 농사가 좀 잘돼서 마음 좀 편고 살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장수군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 국가 안전대진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진장소방서와 건축사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5일까지 시설물안전법 2종 C등급 이하 및 준공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 7개소를 대상으로 단지 내 각종 시설물(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과 옥배, 배수로 등의 해빙기 붕괴·침하발생·사면 불안정 등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한다.

장수군수는 "공동주택 점검결과 안전도 취약으로 위태로워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안전도 취약으로 인정될 경우 재난우려 건축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할 계획"이라며 "공동주택 입주주민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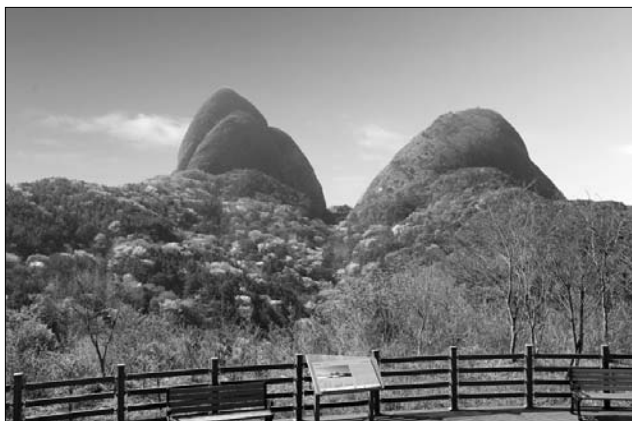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민공청회

부안군은 지난 1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별 쇠퇴지대와 사회·경제·문화적 여건분석 등을 통해 활성화지역 지정(안)에 관한 사항과 우선순위 등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 토론, 주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전략계획의 경우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되길 바라며 주민이 살기 좋으면 외부 방문객도 찾아온다는 생각 아래 주민의 편리성과 부안만의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 및 공동체 문화 확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안군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부안군계획위원회 자료와 부안군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정복도에 전략계획에 대해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전략계획이 승인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진안군은 암마이봉 입산통제를 해제하고 15일부터 등산로를 개방한다.

진안 마이산 암마이봉 등산로 개방

진안군은 겨울 동안 출입을 제한했던 암마이봉 입산통제를 해제하고 오는 15일부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천원문~암마이봉 정상 0.6km구간과 봉두봉~암마이봉 구간이며, 천원문, 봉두봉 방면 2개 출입구가 개방된다.

자연휴식년제로 10년간 통제됐던 마이산도립공원 내 암마이봉 등산로는 2014년 10월 다시 개방되었으며, 탐방

객의 안전을 위해 매년 겨울철(11월 중순~3월 중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입산이 통제돼 왔다.

특히 암마이봉 등산로는 가파른 바위산으로 미끄러운 구간이 있어 우천, 안개, 호우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동절기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통제된다.

군 관계자는 "봄철 등산 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